

# 濟州島方言의 尊待法 研究

김 법 순\*

## 目 次

- I. 序 言                      III. 結 論  
II. 本 論

## I. 序 言

人間社會라면 어느 곳을 막론하고 社會構成員 사이에 社會的 尊卑對立으로 인한 尊待語가 있기 마련이지만, 우리나라처럼 발달되어 있는 類例는 세계 어느 말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古來로 東方禮儀之國이라 불릴 만큼 上下 貴賤에의 待遇가 분명하고, 계급의식이 뚜렷하여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현에 적합한 언어선택을 발전시킨 결과라 하겠다. 여기에는 유교숭상의 영향이란 대단한 이유가 있지만 비단 계급의식만으로 존대법이 발달한 것은 아니어서 상대방의 人格을 尊重하고 자신을 낮추어 공대하는 인간 본연의 아름다움이 있기에 많은 學者들의 관심거리가 되어 왔다. 이러한 검양과 공대는 우리 민족의 자랑할만한 美風이기에 尊待法에 대한 연구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더욱 그 價値와 意義가 크다 하겠다.

尊待法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는 학자들간에 의견이 분분하나 여기에서는 일단 尊待나 謙讓, 下待 등 對話者 間的 發話上에 있어서 相對的 對人關係가 反射되어 나타나는 言語表現 일체를 包括하여 尊待法<sup>1)</sup>이라 하여 둔다.

\* 4학년

1) 學者에 따라서 敬語法이라 하기도 하고 尊卑法, 혹은 待遇法이라 하기도 한다.

이러한 尊待法에 대한 研究는 어제 오늘 일만이 아니어서 많은 先業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간단히나마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濟州島 方言에서의 實在은 어떠한가를 비취봄으로써 이 論文의 方向을 잡으려 한다.

무릇 尊待法이란 話者가 어떤 對象(NP)에 어떤 身分의인 資質, 즉 [+존대] 혹은 [-존대]를 賦與하느냐에 따라 決定된다. 따라서 本考에서는 尊待·謙讓·下待 등의 尊待法 全般에 관하여 論하기 보다는 尊待를 中心으로 하여 考察해 나가기로 한다.

## Ⅱ. 本 論

### 2.1. 現代國語의 尊待法

존대말은 國語 全般에 나타나고 있는 듯 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用言·助辭·體言에서 각각 다른 表現方法으로 表示되고 있다. 따라서 이 세 갈래로 나누어 살펴봄이 옳을 듯 하다. 허나 이런 方法的인 문제는 尊待의 等分이 먼저 설정되어야 수월할 듯 하므로 等分을 먼저 가려놓고 方法에 들어가려 한다.

#### 2.1.1. 尊待法の 等分

- “아버님 진지 잡수십시오”
- “선생님께서 그러하셨어”
- “너 어디 가니?”
- “애, 넌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니?”
- “오늘은 아침도 굶고 짐을 졌어요”
- “이거 얼마요?”

우린 일상 생활에서 위에서 든 例와 같은 말을 자주 들을 수 있고 또 하기도 한다.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레 오가는 말 중에서 우리는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적절한 어휘선택을 하고 있음에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말들은 等分하여 놓기란 참으로 어려운 문제여서 어디까지가 尊待며 어디서부터가 下待인지는 극히 模糊하다 아니할 수 없다.

흔히 그 等分을 아주 낮춤(極卑)에서 아주 높임(極尊)까지 넷, 또는 다섯, 여섯 등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역시 다분히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몇몇 학자들의 見解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崔鉉培님은 “마침법에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을 높이는 정도에 따라, (1) 아주 낮춤(極卑稱, 해라), (2) 예사낮춤(普通卑稱, 하계), (3) 예사높임(普通尊稱, 하오), (4) 아주높임(極尊稱, 합쇼)의 네 가지 다름이 있고 또 等外로 반말이 있나니…”라 하여 4等分에 等外를 합하면 5等분이 되는 셈이다. 반말을 따로 설정해 놓음은 특이하여 납득은 되지만 다음과 같은 說明은 이해키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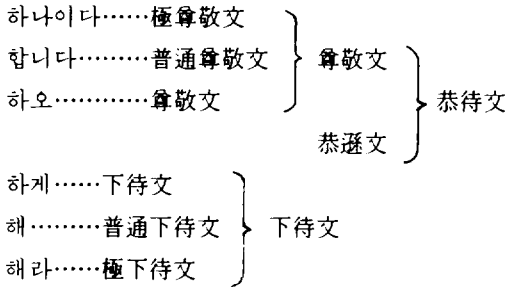
“반말(半語)은 ‘해라’와 ‘하계’, ‘하계’와 ‘하오’의 중간에 있는 말이니 : 그 어느 쪽 임을 똑똑히 드러내지 아니하며 그 등분의 말맛을 흐리게 하는 경우에 쓰히느니라, 그러므로 반말은 ‘아주높임(極尊稱) 아님만은 분명하니라…”에서 보듯 반말을 ‘해라’와 ‘하계’, ‘하계’와 ‘하오’의 中間에 있는 말이라고 보는 것은 곤란하다. 한 가지 表現이 높임이나 낮춤에 두루 쓰일 수는 있어도 위와 같이 두 等分으로 쓰인다는 것은 再考되어야 할 것이다.

許維님은 “존대법에는 다섯 층계가 있어서 각 활용형에 두루 나타난다” 하고 동사, 형용사, 지정사를 각각 서술, 의문명령으로 나눠 보았는데 그 중 동사 서술만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 갑니다.
- (2) 가오.
- (3) 가네.
- (4) 간다.
- (5) 가(아).

“(1)~(4)는 높임의 등분이고 (5)는 반말이다. (5)는 존대의 차례로 보면 (2)와 (3) 사이에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見解는 崔鉉培님의 等分과 대체로 일치되나 반말이 ‘하오’체와 ‘하계’체 사이라고 규정한 점이 다르다. 여기에서 문제시되는 것은 반말체가 尊待나 下待나인데 「서기 15세기 국어의 존대법과 그 변천」이란 논문에서 5개 등분 중 두 가지가 존대에 속한다고 밝힘으로써 반말은 낮춤법의 가장 높은 등급이 되고 있다.

金敏洙님의 구분은 가장 많은 6等分으로 주의를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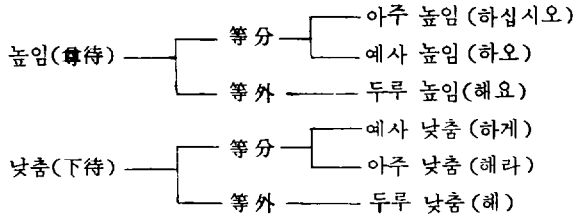


여기에서 특강적인 것은 普通下待文으로 반말을 고정시켜 버린 점인데 許姬님은 ‘하오’와 ‘하게’의 중간임에 비해 ‘하게’와 ‘해라’의 중간 위치로서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表에 의하면 恭待文과 下待文이 서로 整然한 對照를 보이고 있는 듯하나 내용면에서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하오’와 ‘하게’는 對應되지만 ‘해’와 ‘합니다’, ‘해라’와 ‘하나이다’는 서로 대조되지 않는다. 極尊敬文은 文語體로 口語體인 普通尊敬文과 구별해 놓고 있는데 이 두 등분을 차라리 하나로 묶어도 못하지 않을까. 그리고 반말체는 ‘하오’와 ‘하네’의 중간 등분으로 나눈 것보다 ‘하게’와 ‘해라’의 중간등분으로 설정하여 타당성을 주고 있다. 반말이 ‘하게’와 ‘해라’에 두루 通用될 수 있다는 점을 考慮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그런 등분의 처리는 불충분하다. 보통하대로 보기에겐 근거가 매우 약한 것이다.

李熙昇님의 見解는 金敏洙님의 見解와 대체로 유사하나 반말을 따로 설정한 점이 다르다.

그 외에 金錫得·강복수·유창균·강운호 등 많은 논문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문제는 반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것, 또는 ‘합쇼’, ‘하소서’, ‘하오’의 등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등으로 하여 논란이 분분하다. 여기에서 좀더 구체적이고 분석적인 研究로서 成者徹의 見解는 주목을 끌만하다. 즉 높임체와 낮춤체에서 문제시되는 ‘반말’의 속성을 밝히고 ‘두루높임’, ‘두루낮춤’으로 等外區分을 해 놓음으로써 또 한가지 문제시 되었던 ‘-요’의 위치까지 확립해 놓은 것이다.



또 高永根(1974)도 역시 四體系로 ‘해라’, ‘하계’, ‘하오’, ‘합쇼’體를 들고 ‘요統合形’과 ‘요統合可能形’의 二元的 體系로 양분하여 研究의 발전을 보였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尊待法의 이러한 等分문제는 이렇다할 완벽한 표준이 없어서, 현대에 와서 대화에 자주 등장하는 ‘요’의 문제, 그리고 ‘반말’의 문제 등으로 지속적인 研究가 이루어지고 있다.

### 2.1.2. 尊待의 方法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였듯이 존대법은 구체적으로 用言·助辭·體言 등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尊待語法을 記述함에 있어서도 이 세 경우로 갈라 살펴려 한다.

#### 2.1.2.1 用言에서의 尊待語法

무릇 존대말은 話者와 聽者간의 對話中에서 話者가 聽者를 尊者로서 待遇하거나 卑者로서의 謙讓을 나타내어 보이는 말씨이므로 존대법의 기술에서는 말 자체 뿐아니라 그 말을 주고 받는 말할이(speaker)와 들을이(hearer)를 함께 考察對象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다.

- a. 저기 네 아버지가 오시는구나.
- b. 혜숙이, 이 편지 할머니께 갖다 드려라.
- c. 비가 옵니다.

상대방을 어느 정도로 높이고 낮추느냐를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체계인 존대법은 대접받는 대상이 무엇이나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된다. 그 하나는 (a)에

서 처럼 그 대상이 어떤 叙述(동작이나 상태)의 主體 즉, 한 문장의 主語인 경우다. 尊者에게의 尊待를 말로 나타내어 보려면 尊者가 主體로서 하는 行爲, 그가지는 性質·狀態·存在 등을 이르는 말을 높여서 말해야 될 것이다. 文의 叙述語의 主體語로서 가리켜지는 尊者를 尊待하는 이간은 존대말 範疇를 主體尊待語라 한다.

(b)에서는 문장의 존대 대상이 편지를 갖다 주는 혜숙이의 행위가 아니라 그 미침을 당하는 할머니이다. 즉 尊者가 叙述語가 나타내는 行爲를 받는 자리에 있을 경우를 말하는데, 卑者의 行爲가 尊者에게 미치게 되니(바꿔 말하면 卑者의 行爲를 尊者가 받게 되니) 거기에 尊卑對立關係가 成立되며 그러한 尊卑對立關係가 말에 反映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尊者에 대해서 행하는 卑者의 行爲를 낮추어 말함으로써 尊者를 尊待하는 尊待範疇를 客體尊待라 한다.

세 번째로 例(c)와 같이 聽者를 존대 대상으로 하는 尊待法이 있는데, 이를 相對尊待法이라 한다. ‘아버지가 오시다.’, ‘아버지가 오셔요.’, ‘아버지가 오십니다.’에서 처럼 말을 듣는 사람에게 얼마나 공손히 하느냐인데, 다른 말로 恭遜法이라고도 한다.

이와같이 세 경우를 차례차례 보면서 用言으로 表示되어지는 尊待法은 어떤 한지 살펴보자.

### 主體尊待法

文章에서 叙述語의 主體語 자리에 있는 者가 말함( speaker)에 대해서 尊者일 경우 그 존자를 尊待하는 말이다. 이 主體尊待를 나타냄에는 一般的으로 叙述語의 語幹에 主體尊待 表示의 先語末語尾 ‘-시-’를 첨가하여 표현한다. 즉, 여기서는 [+존대]나 [-존대]나만이 중요하며, 平待나 下待는 문제되지 않는다. 이때 極尊待인 경우는 「(으)옵시」, 「(으)압시」를 語幹에 붙인다.<sup>2)</sup>

가다-가시다: 가옵시다, 가압시다.

2) 極尊待란 가장 극진한 존대란 뜻으로 階級社會에서는 볼 수 있어도 平等社會에서는 볼 수 없다. 다만 지난날의 極尊待語가 편지글 따위의 글말에 남아 쓰이기도 한다.

읽다-읽으시다: 읽으옵시다, 읽으압시다.

- 신문이나 보시지요.
- 김사장님은 조금 전에 가셨어.
- 선생님 좋아하시는 음식이 뭣입니까?

몇몇 어휘에서는 主體尊待語形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그것을 대신 쓴다.

먹다-드(시다), 잡수시다, 잡숫다.

자다-주무시다.

앉다-편찮으시다.

말하다-말씀하시다, 여쭙다, 아뢰다.

야단치다-꾸짖으시다, 꾸지람하시다, 걱정하시다.

시키다, 이르다-분부하시다.

죽다-돌아가시다, 세상을 버리시다, 운명하시다, 졸하다, 승하다.

있다-있으시다, 계시다.

데리다-모시다.

주다-드리다, 바치다, 이바지하다.

만나다-뵙다.

앉다-좌정하다.

主體尊待는 尊者의 行爲뿐 아니라 그의 狀態·性質·存在 등에 대해서도 이뤄져야 하므로 「(으)시」는 動詞뿐만 아니라 形容詞·存在詞·指定詞에도 添加된다.

- 世宗大王의 높으신 뜻에……
- 선생님 댁은 어디 있으십니까?
- 이 어른은 우리의 영웅 忠武公이시다.

이때 叙述內容의 主體가 될 수 있는 者를 人稱別로 생각할 때, 말할이는 尊待對象이 될 수 없으므로 결국 第二人稱(들음어)·第三人稱(第三者)이 된다. 對話에 있어서 들음어는 話者의 尊待語 정도를 감시하는 상태에 있게 되어 존재의 정도가 絕對的이겠지만 尊待對象이 第三者인 경우는 말 듣는 상대가 그런

감시(社會的 制約)를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면 主體尊待를 생략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학생간에 있을 수 있는, “애, 요번에 새로운 선생말야, 뭔데 그렇게 우리한테 딱딱거리니?”와 같다.

### 客體尊待法

15세기 국어에 있어서 客體尊待語는 叙述用 語幹에 ‘습’을 添加함으로써 表示되는 文法的 事實이었다.

- 世尊 이 法을 니르시니 우리 다 좃츠와 깃습노이다(法華經諺解2:48)
- 부터 옷 보스면 당다이 得道를 샅리 하리니(釋譜詳節6:40)

그러나 現代語에서는 語彙論的으로 客體尊待에 해당하는 尊待形이 몇몇 마련되어 있어 그것을 가려쓴다.

- 보다-뵘다, 뵈다
- 말하다-여쭙다, 아뢰다, 사뢰다
- 주다-드리다, 올리다
- 내어놓다-바치다
- 데리다-모시다
- 절하다-저쭙다
- 사장님을 뵘고자 합니다.
- 이걸 할아버지께 갖다드려라.

### 相對尊待法

말할이가 卑者, 들을이가 尊者일 경우 말할이가 들을이에 대한 尊待意向을 나타내어 보임으로써 相對에 대한 존대말이 성립되는 존대법이다.

여기서는 文章의 內容과는 아랑곳 없이 自己의 말이 상대를 尊者로서 待遇하며 말해지고 있다는 것을 表示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文의 끝에 가서 그런 尊待의 뜻이 깃든 叙述用言 終結語尾를 씌으로써 나타낸다. 그런데 이 상대존



대법은 앞의 주체존대·객체존대에 비해 훨씬 복잡하게 나타난다. 즉 聽者가 누구냐에 따라 그 대접의 등급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서는 ‘해라체, 해체(반말), 하계체, 하오체, 해요체, 합쇼체’ 등 여섯 등급으로 살펴보자.

‘해라체’는 청자를 가장 낮추는 상대존대로 ‘-아라/-어라’, ‘-다/-는다 /-니다’, ‘-느냐, -니, -자, -구나’ 등의 어미로 표현된다. 나이 어린 손아랫 사람이나 가까운 친구 사이에 널리 쓰인다.

- 창호야 너는 집에 있어라.
- 너 지금 바쁘니?
- 애들아, 그만 집에 가자.

‘반말체’는 해라체와 거의 동등한 등급의 상대존대법이지만 약간 차이가 있다. ‘-아/어, -지, -야/-이야’ 등의 어미로 표현된다.

- 창호야, 넌 집에 있어.
- 저기 좀 봐, 눈이 와.
- 애들아 나랑 같이해.

앞의 ‘해라체’와 비교해보면 ‘해라체’ 보다는 덜 權威的이고 또는 親密度가 덜하며 그만큼 상대방을 어려워하는 말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口語體에 적합한 ‘반말체’는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하는 중립적 등급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 ‘해라체’와는 다른 점을 지닌다.

다음 ‘하계체’도 역시 아랫사람이나 친구에게 쓰나 ‘해라체·반말체’ 보다는 좀더 높여 대접하는 상대존대법이다. ‘-게, -네, -일세, -나, -세’ 등의 어미로 표현된다.

- 창호, 집에 있게.
- 여보게, 저기 좀 보게.
- 자네, 지금 바쁘나?

이러한 ‘하계체’는 아랫사람이지만 나이가 좀 들어서 함부로 대하기가 어렵

다는 태도를 보이는 등급이다.

‘하오체’는 아랫사람이나 친구를 극진히 대접하여 높이는 상대존대법이다. ‘-오, -소, -구료’ 등의 어미로 표현된다. 이 ‘하오체’ 역시 상대방이 아랫사람이나 친구임에도 나이가 많이 들어 함부로 낮추기가 거북스러울 때 상대방을 높이는 존대법인데 현대에선 그 쓰임이 활발치 못하나 편지글 등에서 많이 쓰이기도 한다.

- 김형, 참 오랫동안이오. 반갑구료.
- 여보, 거기 앉아 좀 푹 쉬오
- 당신 편지 잘 받았소. 요즈음 거기 날씨는 어떠한오? 여기는 지금 눈이 내리오.

‘하오체’는 中世國語나 近世國語에서 상당히 많이 쓰였고 때론 웃사람에게 까지 쓰인 바 있으나, 현대국어에서는 웃사람에게 쓰이지는 않는다. ‘하계체’와 마찬가지로 話者의 권위를 보이고 격식을 많이 차리는 말투임에서 그러한 권위와 격식을 싫어하는 현대인의 감각에 부적합한 까닭에서다. ‘하오체’는 따라서 ‘하계체’와 묶어져서 이해되어야 할 존대법이라 하겠다.

‘해요체’는 형식상 반말체에 ‘-요’가 결합한 형태인데 ‘합쇼체’와 넘나들며 사용되는 상대존대법이다. ‘합쇼체’ 보다는 훨씬 격식을 덜 차리고 덜 정중하게 상대방을 대접하는 만큼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존대법이다. 現代國語에 와서 ‘반말체’가 상대방을 높이지 않고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등급이라면 ‘해요체’는 상대방을 높여 대접하는 가장 대표적인 등급이다. 그만큼 ‘해요체’와 ‘해체’(반말체)는 일상회화에서 많이 쓰인다.

- a. 뭐가 와? 비?
- b. 아니, 눈.
- a'. 뭐가 와요? 비요?
- b'. 아베요, 눈요.

‘합쇼체’는 상대방을 가장 높이는 상대존대법이다. 계급이 중시되는 사회에서는 특히 그러한데 現代國語에 와선 일상회화보다는 공식석상에서 선택되어지는 존대법으로 훨씬 많이 쓰인다. ‘-십시오, -으십시오, -습니다 /-ㅂ

니다, -습니까/-하니까' 등의 어미로 표현된다.

- 선생님 이리 앉으십시오.
- 아버지님, 저 왔습니다.
- 여러분의 졸업식에 와서 축사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지금부터 정오 뉴우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2.1.2.2. 助詞에서의 尊待語法

상대방에 대한 尊待表示로서 助辭 중에는 특별히 尊待語形이 마련된 것이 있다.

主體尊待에서 主體로서의 尊者를 가리키는 말에 붙는 主格助辭 「이, 가」 대신 「께서」가 있다.

- a. 아버지가 주셨습니다.
- a'. 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 b. 김선생님이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 b'. 김선생님께서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잘 쓰이지는 않지만(現代國語에서) 極尊待에서는 「께서」를 쓴다.

- 할아버지께서 추석까지 고향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客體尊待에서 與格語에 붙는 助辭는 「에게, 한테」 대신 「께」를 쓴다.

- 어른님께 먼저 드려라.

쓰임이 크게 제한되어 있지만 呼格助辭로 「아·야」 대신 「이시여」가 있어 祈禱文 등에서 쓰인다.

-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지시여!

### 2.1.2.3. 體言에서의 尊待語

모든 體言에 예사말과 대응하는 존대말을 따로 마련해 두기는 어려운 것이라 尊待語가 발달되어 있지는 못하나 몇몇 어휘에는 뚜렷한 존대어가 있다.

直接的으로 尊者를 가리킬 경우에는 社會的 身分·職位 등으로 가리키게 되는데 이때 접미사 「님」이 많이 쓰인다.

- 사장님, 물건 가져 왔습니다.
- 과장님, 손님 오셨습니다.
- 사모님이 오늘 오라 하셨잖습니까?

이렇게 이름씨 아래 존대표시의 「님, 씨」가 쓰이는 경우는 많다. 아버님, 어머니님, 형님, 누님, 선생님, 벗님, 영감님, 마나님, 교수님, 부처님, 하느님, 햇님, 달님, 스승님……. 김씨, 이씨, 박씨, 김××씨, 장××씨…….와 같다.

間接的인 尊待로서는 ‘식사→진지, 순갈→수저, 간자, 말→말씀, 병→병환, 이→치아, 생일→생신, 이름→존함·성함, 의견→고견, 집→택, 나이→연세……’ 등이 있다.

漢字語는 歷史的으로 보아 漢文崇上의 史實에서 重示되어 온만큼 尊待語에서도 많이 쓰인다. ‘아버지→春夫丈, 어머니→慈堂, 아저씨→院丈, 이름→尊銜, 딸→令愛, 아들→令息……’ 이밖에 ‘高見, 高堂, 貴家, 貴宅, 拜見, 拜受, 玉筆, 玉稿, 尊體, 尊患……’ 등등이 있다.

이상에서 現代國語 尊待法에 대하여 간략히나마 살펴보았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5세기 국어 존대법은 主體尊待, 客體尊待, 相對尊待의 三分尊待體系를 이루어 이들 모두가 활용범주로서 뚜렷이 存在했었다. 그런데 言語는 社會의 所産이기 때문에 時代에 따라 社會構造나 制度가 바뀌면 言語도 變移한다. 上下關係의 階級意識이 強調되는 社會는 階級言語와 絶對敬語가 發達하고 自由와 平等이 提唱되는 社會는 生活言語와 社交敬語가 發達한다. 그러한 社會의 發展은 階級社會에서 平等社會로 專制的社會에서 民主的 社會로 발전해 왔으므로 言語 역시 階級性·絶對性을 脫皮해왔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간략히 그 변화를 살펴보면 존대법은 단순화, 자기와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이를 높이는 경향, 비격식체의 사용(반말체·해요체) 등으로 요약되는데, 이러한 경향은 사회계층이 비교적 고정적으로 확립되어 있던 과거와는 달리 사회계층의 존재가 고정적이지 않고 서로 넘나들며 인간관계가

자기를 중심으로 핵단위하여 가고 수평화해 가는 사회구조의 변동과 관계 깊다 하겠다. 여기에서 살펴본 尊待法 全般은 따라서, 社會構造에 따라 변동의 양상이 짙은 상태의 尊待法이므로 아직 뚜렷이 표준화된, 체계적으로 완벽한 尊待法이 아니다.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 있어 修辭·文體論的 研究 등으로써 補完되고 또 各 方言의 尊待法體系를 검토, 보완될 때 비로소 그 全貌가 드러나리라 본다.

## 2.2. 濟州島方言의 尊待法

濟州島 方言<sup>3)</sup>이 研究對象으로서 보배로운 價値를 지닌다 함은 일찍부터 널리 알려진 바대로이다. 音韻分野에서 後舌低母音인 「ㄹ」音의 存在, 二重母音으로 「으」의 存在, 그리고 語彙分野에서 한 單語가 여러 語形으로 나타나고 그들 語形이 오늘날 共時態로 使用되어지고 있는 데, 그 語形들 상호간에는 語彙史에서 볼 때에 近 千年間이나 間隔差가 있다는 事實들, 이들 모두가 다른 地域의 方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特異한 點들이다. 이에 못지 않게 尊待法의 形態들 또한 特異한 點이 많아 全般的으로 살펴봄으로써 現代國語 尊待法의 本質의 理解와 완벽한 體系化에 한 걸음 더 나아가리라 기대한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그 等分부터 살펴보자.

### 2.2.1. 方言의 尊待等分

앞서 現代國語 尊待法에서는 等분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분분하였다. 어떤이는 4體系, 어떤이는 5體系, 또 6體系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면서 주장을 달리했다. 그러나 方言에서는 대체적으로 ‘흡서體(尊待)’, ‘하여體(平待)’, ‘하라體(下待)’ 등 三項的 對立의 尊待法으로 體系化된다.

- 그 그릇 이리 줍서.
- 난 저래 감시키여.
- 제기제기 일 하라.

方言 尊待에서는 標準語에 比較해 볼 때 極尊稱인 ‘합쇼체’가 별다른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

---

3) 이하 方言이라 함

- a. 살평 잘 갑서예.
- b. 살평 잘 가십서예.

改新波의 영향을 받아 존대형태의 하나인 ‘-시-’가 쓰이는 것은 최근에 와서이며 a와 같은 존대형이 대중을 이룬다.

## 2.2.2. 尊待方法

### 2.2.2.1. 名詞에서

名詞의 경우 平語 外에 尊待語가 몇몇 語彙에 따로 있어 쓰인다. “아버지→春夫丈, 어머니→慈堂, 병→病患, 술→藥酒, 이→치아, 말→말쌈…”

### 2.2.2.2. 代名詞에서

代名詞에는 尊待等差가 있다. 즉 1인칭에서는 자신을 존칭할 수 없으므로 謙讓稱 「저」가 있어 때로 「지」로 실현되기도 한다. 2인칭 平稱으로 「느」가 있고 이에 대한 尊稱으로는 「어르신, 어른」이 있으나 잘 쓰이지는 않는다. 대신 「노형, 임자」 등이 많이 쓰이고 연령 정도에 따라 「아지바님, 아지마님, 성님, 삼춘(男女不問)」 등 주로 가까운 친척 부르듯 親族名으로 상대방을 부르 것은 方言의 한 특색이라 하겠다. 3인칭으로는 ‘항여체·항라체’에 두루 「아이, 자이, 가이」가 쓰이고 尊稱으로 ‘흡서체’에는 「그사름, 저사름, 저분, 그양반, 저어르신네」 등이 쓰인다.

### 2.2.2.3. 助詞에서

標準語 尊待法에서는 主格助詞 「이, 가」 대신 「께서」, 與格助詞 「에게」 대신 「께」 등이 쓰여 尊待表示를 하지만 方言에서는 이러한 形態가 나타나지 않는다. 呼格助詞로 기도문 등에 「이시여」가 가끔 쓰인다.

### 2.2.2.4. 感歎形으로

- 잘도 곱다예.
- 너미 잘 햐수다양.

敘述形語尾 「-다」「-우다/수다, 쿠다」 뒤에 「예, 양」 등 이 지역 특유의 감탄형어미가 붙어 尊待表示를 한다. 이때

- 잘도 잘 <sup>ㅎ</sup>섬수다예.

와 같이 /-시/形態가 쓰이기도 하나 최근의 일이라 연세드신 분들의 發話에 신 어색감이 많다.

#### 2.2.2.5. 用言에서

話者が 어떤 對象을 尊待하기 위해 그 表示方法으로 사용되는 用言의 方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用言의 活用語尾로써 나타내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用言謙讓語로써 나타나는 경우이다. 우선 前者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相對尊待의 {-우-}

方言言衆들 사이에 흔히 쓰이는 ‘-수-, -쿠-’의 ‘-우-’를 말한다.

- 철순 집의 감수다.
- 애기 잘도 잘 놀암수다.
- 자의 지붕 우의 올랐수다.
- 난 밧되서 일헛수다.
- 난 학교에 가쿠다.
- 저래 감시쿠다.
- 이디서 놀암시쿠다예.

와 같이 動作相形態素 /-암-/·-/앗-/ 등 다음에 ‘-수다’ 語形이, 또한 ‘-쿠다’ 語形이 빈번히 쓰여 尊待表示를 한다. 여기에서의 ‘-암수-, -앗수-, -쿠-’에 의한 尊待는 전국적으로 특이한 形態素이므로 分析·考察해 보기로 한다.

‘감수-’에서 /-아-/는 副詞形에서 온 것이고 ‘-ㅁ-’은 進行形을 表示한다. 따라서 /-암-/은 先行動作의 進行을 표시한다고 하겠다. 문제는 ‘-수-’인데 이것이 單一形態素인가 아니면 複合形態素인가가 疑問이다.

이 ‘-쿠-’를 分析·考察하기 전에 다른 形態素 ‘-키-’의 경우를 먼저보자.

- a. 널 또시 오쿠가?
- b. 어, 오키여.

이 대화 중 a는 年下者가 年上者에게 또는 相對者를 尊待할 意向을 가진 자가 그 相對者에게 質問하는 發話이고 b는 a에 대한 應答이다. a의 用言을 分析하면 ‘오쿠가’의 /-가/는 疑問法 語尾이고 /오-/는 語幹이니 先語末語尾 /-쿠-/가 남게 되는데 이것이 單一形態인가 하는 것은 ‘오키여’의 /-키-/를 分析해보면 알 수 있다.

‘-키여’는 ‘-켜’로 실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의 ‘-키여/-켜’를 ‘쿠+(이)여’로 分析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方言에서 흔히 쓰이는

이건 느네 그릇이여.  
저건 철수네 집이여.

에서 ‘그릇이여, 집이여’의 ‘-이-’는 敘述格語尾이다. 그리고 ‘-여’는 肯定的 斷定을 내리는 平叙法語尾인데 이와 같은 形態인 ‘-키여’의 ‘-이여’도 마찬가지라 본다. 이렇게 分析되면 {-쿠-}만이 남아 하나의 독립된 意味·機能을 하는 形態素라 할 수 있겠다. 그럼 그 意味와 機能은 어떠한지 살펴보자.

- 오늘밤 비 오키여.
- 가의 공부 잘 하키여.
- 올원 쌀값이 오르키여.

이때 ‘오키여, 하키여, 오르키여’는 모두 話者가 보전대 아무래도 이러이러 하리라는 推測을 言述한 것들이다. 여기서의 형태소 {-쿠-}은 推測表示形態素이다.

- 난 집의 가키여.
- 나도 공부 하키여.



여기에서는 {-ㄱ-}은 話者의 意圖를 나타낸 意志形態이다.

- 그 일은 나도 향여지키여.
- 저기라면 나도 가지키여.

표준어로 ‘그 정도라면 나도 할 수 있겠다’의 可能表示形態로서 {-ㄱ-}의 例이다.

이렇게 볼 때 ‘-키여’는 분명 ‘-ㄱ-+이여’로 나누어지고 이때의 |-ㄱ-|은 推測이나 意志·可能을 表示하는 하나의 形態素로 判명된다. 따라서 앞에서 例로 든 ‘감시쿠다, 오쿠가’ 등의 ‘--쿠-’역시 ‘-ㄱ-+ㄷ-’로 分析 可能한 것이 된다. 즉 ‘감시쿠다’에서는 ‘-ㄱ-’은 話者 自身の 意向을, ‘오쿠가’의 ‘-ㄱ-’은 상대방의 意向을 묻는 可能을 表示한 形態素이고 ‘-우-’는 상대방을 尊待하는 뜻의 語尾로서 方言特有的 相對尊待形態인 것이다.

- 이저 뉘우짜?
- 이<sup>○</sup>전 연필이우다.
- 저<sup>○</sup>디 걸어가는진 뉘우짜?
- 저<sup>○</sup>전 몰이우다.

이렇게 되면 앞의 ‘-수-’의 의문도 풀리게 된다. 즉 ‘-ㅅ+우’로 나뉘질 수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우-/는 相對尊待를 表示하는 形態임은 밝혀진 바와 같다. 여기서 /-ㅅ-/의 意味는 다음 例에서 알아낼 수 있겠다.

- a. 철수 밥 먹어냐?
- b. 예, 먹음테다.
- a'. 철수 밥 먹어서냐?
- b'. 예, 먹어십테다.

a와 b의 문장에서 述語 ‘먹어냐’, ‘먹음테다’는 철수가 과거 어느 자리에서 밥 먹은 일이 있는데 그것을 보았던 일이 있는 相對者에게 回想하여 答하게 하데 回想法 語尾 /-어-/가 쓰인 경우이다. 이에 비해 a’와 b’의 ‘먹어서냐’, ‘먹어십테다’는 ‘먹어 있더냐, 먹어 있음테다’의 意味로 /-서-/·/

-십- /에서 /-스- /은 先行動作이 完了되어 계속된 상태를 보이는 「完了存續相 形態」이다.

- 가의 그 신 신어냐?
- 가의 그 신 신어서냐?

이리하여 方言의 相對尊待形態로 ‘-수-’나 ‘-쿠-’의 /-우- /가 있을 수 있다.

- 相對尊待의 |-ㅂ-|

用言의 活用語尾로써 나타내어지는 方言의 尊待形態로 相對尊待의 |-ㅂ-|을 |-우-|에 이어 들 수 있다.

- 흔서 재게 갑서.
- 철순 일 잘 훑데다.
- 이 얘기 말 잘 쏘읍네다.

方言에서 흔히 쓰이는 이와 같은 發話에서 年下者가 年上者에게 혹은 相對者에게 尊待할 意向을 가진 話者가 그 相對者에게 尊待表示形態로서 |-ㅂ-|을 사용하여 존대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즉, ‘갑서’는 ‘가+ㅂ+서’로 명령형 어미 ‘-서’를 빼면 ‘가다’의 어간 아래 |-ㅂ-|이 남아 相對者를 尊待할 意向을 가진 話者가 그 相對者에게 尊待하는 形態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쏘읍네다’에서도 直說法語尾 /-네- /를 分析해내면 어간 뒤에 |-ㅂ-|만이 남아 尊待表示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 |-ㅂ-|은 下待體인 하라體나 平待인 하여體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도 이 形態가 尊待表示形態임을 확인할 수 있다. 相對尊待命令의 形態素이다.

- 相對尊待의 |-마썸|

相對者에게 尊待를 表示할 意向을 가진 話者가 그 相對者를 尊待할 때 語尾 |-마썸|을 사용한다.

- a. 밥 먹언다?
- b. 예, 밥 먹언마씀
- a'. 이젠 집의 가라.
- b'. 이젠 집의 가마씀?

이들 發話에서 年上者인 a, a' 말에 年下者로서 相對者를 尊待하여 말하는 機能을 오직 {-마씀}이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서 語尾 {-마씀}을 떼어내버리면 '밥 먹언', '집의 가'와 같이 平待의 「하어體」가 되어버리고 만다.

#### 平叙法

尊待等分	하 라 체	하 여 체	흠 서 체
尊待	먹 엄 저	먹 엄 주	먹엄주마씀
	오 라 라	오 란 게	오란게마씀
語尾	오 앓 저	보 앓 주	보앗주마씀

#### 疑問法

尊待等分	하 라 체	하 여 체	흠 서 체
尊待	보 아 나	보 아	보아마씀
	먹 언 다	먹 언	먹언마씀
語尾	오 크 나	오 카	오카마씀

이렇듯 하어체에 {-마씀}만 添付시키면 흠서체로서 相對尊待가 되니 이 {-마씀} 역시 앞서 말할 {-우-}, {-비-}과 같이 相對尊待形態素라 할 수 있겠다.

話者が 어떤 對象을 尊待하기 위해 그 表示方法으로 사용되는 用言의 方法으로 用言謙讓語로써 나타나는 方法을 살펴보자. 用言謙讓語로써 尊待하는 方法을 客體尊待라 하는데 方言에서 다음과 같은 發話가 言衆들 사이에 흔하게 주고 받아진다.

- a. 이거 느네 아방신디 잘 안넨다?
- b. 예, 잘 안네쿠다.

여기에서 보이는 ‘안넨다’는 ‘드리다’의 뜻이다. a와 b를 통해서 볼 때 話者와 聽者는 裏面에 숨겨져 있지만 ‘안네쿠다’의 /-쿠-/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相對尊待形態素이므로 聽者가 話者에 비해 年下者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客體의 身分性은 어떠한가 보자. 客體의 身分은 항상 主體와 상관·대비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 話者가 聽者에게 ‘느네 아방’이라 하는 것으로 보아 客體는 聽者의 아버지이나 ‘-님’ 따위를 붙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話者보다 年下者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主體와의 관계로 客體는 年上者 즉 主體의 아버지이므로 존대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안넨다’라는 謙讓語가 쓰이게 된 것이다. 話者의 입장에서 ‘안넨다’란 語彙를 쓰게 된 것은 主體 즉 聽者에 대비해 볼 때 尊貴하다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존대] 자질을 부여한 결과 “안넨다”라고 言述되어진 것이다. ‘안네쿠다’는 語尾 ‘-쿠-’가 벌써 尊待表示를 하고 있어 二重尊待가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 a. 이거 꽃당 아바님 드립서.
- b. 기여 꽃당 드리키여.

言衆들 사이에 자주 오가는 發話이다. 이때의 叙述語 ‘드립서’, ‘드리키여’ 역시 客體尊待形態素라 할 수 있다. ‘드립-’의 {-ㅁ-}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相對尊待命令法語尾이므로 ‘안네쿠다’와 마찬가지로 二重尊待가 되어지는 語彙라 하겠다. 표준어와 마찬가지로 ‘주다’의 謙讓語이다.

方言에서는 또 다음과 같은 發話도 言衆들 사이에 주고 받아진다.

- 하르바님신디 강 술와똥 오라.

이때 叙述語 ‘술와똥 오라’는 ‘아되두고 오너라’의 뜻이다. 現在는 나이드신 노인층에서나 가끔씩 쓰여지는 말이지만 ‘술와’의 原形 ‘술다(白)’는 新羅時代 때부터 客體尊待語의 形態로 사용되어온 것으로서 ‘웃어른에게 삼가

말씀 드린다는 뜻을 지닌다.

- 願往生 願往生 薰人有如 白遣賜立 <願往生 願往生 그럴사름 있다. 숲고 사서><sup>4)</sup> -願往生歌
- 慧星也 白反也 人是有叱多 <慧星여술분여 사르미 있다>-慧星歌
- 道士는 道理 비하는 사르미니 菩薩 온 술브니라(月印1:7)
- 말싸몰 술브리 하덕(龍13장)

漢字語 「白」의 해독인 ‘숲다’는 李朝 客體尊待形態인 |-습-|으로 변형되기도 하였으나 現在 方言에 남아 있지는 않고 오히려 그 原形이 쓰이고 있음은 특이하다 하겠다.

方言에서 客體尊待語로 ‘올리다, 모시다’ 등이 있으나 표준어에서만큼 발달되어 있지 않다.

### 2.2.3. 方言尊待法의 特徵

以上에서 알아본 方言에의 尊待法은 표준어와 대조하여 그 特徵을 살펴보면 우선 그 等分設定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 표준어에서는 崔鉉培·許雄의 5體系, 金敏洙 6體系, 李熙昇·金錫得·高永根·成著徹...등 많은 學者들이 四·五·六體系로 意見을 세우고, 반말체와 해요체의 本質을 규명하고 있는데 반해 方言尊待體系는 ‘흡서체(尊待)·형여체(平待)·하라체(下待)’ 등 단 三體系를 이루어 特徵的이다.

다음으로 尊待方法的인 面에서 볼 때 표준어에는 主體尊待·客體尊待·相對尊待法이 뚜렷이 있는데 方言에는 相對尊待와 客體尊待가 發見될 뿐 主體尊待는 確立되어 있지 않다.

- a. 안녕히 가세요/가십시오
- b. 잘 갑서/갑서양.

그러나 近來에 표준어의 영향을 받아 주체의 動作을 나타내는 動詞의 語幹에 /-시-/를 삽입시켜 言述하는 경향이 짙어졌다.

4) 梁柱東교수 해독

a) 갑서, 먹읍서, 눅서, 받읍서, 들어옵서, 더꿍서...

b) 가십서, 먹으십서, 노십서, 받으십서, 들어오십서, 더끄십서...

a)系列의 語尾는 본래 方言 命令法이고 b)系列의 語尾는 近者에 정보의 발달과 일일생활권으로 편리해진 현대생활에서 문화교류가 쉽게 이뤄지면서 생겨난 표준어 영향의 主體尊待命令法이다. ‘-십서’는 ‘시+--ㅂ--+서’로 분석 가능한 데 이때 |-ㅂ-|이 相對尊待形態이므로 결국 ‘-십-’은 二重尊待의 複合形態이다.

- 아버지 오<sup>ㅂ</sup>ㅅ<sup>ㅂ</sup>다.
- 언제 서<sup>ㅂ</sup>월 가<sup>ㅂ</sup>ㅅ<sup>ㅂ</sup>수<sup>ㅂ</sup>파?
- 선생님 나가<sup>ㅂ</sup>ㅅ<sup>ㅂ</sup>다.

이들 發話에서 ‘-ㅅㅂ-’는 ‘-시+ㅂ+ / -ㅂ- / +우’로 分析되므로 앞의 ‘-십-’처럼 ‘-시-’와 ‘-우-’가 複合된 二重尊待로 主體尊待와 相對尊待를 보인다.

그러나 어쨌든 아직 方言에 主體尊待가 確立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표준어에서는 일찍부터 사용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方言 言衆들의 意識構造와 이 地域 社會構造와도 관련된 特異한 現象이라 할 수 있겠다.

反面 相對尊待法은 독특한 形態素를 가지고 表現되고 있다. 즉 |-우-, -ㅂ-마씨 등 三元的 系列 形態로 表現되는 것인데 이는 他 方言에 그 類例를 찾아볼 수 없는 特徵이다. 여기에서 /-우-/는 文獻語 尊待法에서 本來의 相對尊待形態인 /-ㅂ- /와 일치된다<sup>5)</sup>는 점으로 보아 세가지 「相對尊待」 形態素 중에서도 가장 오래 전부터 쓰여온 것으로 판단된다.

|-ㅂ-|은 15세기 相對尊待形態인 /-ㅅㅂ- /의 後身이다. /-ㅅㅂ- /은 ‘ㅅ·ㅅㅂ, ㅅㅂ, ㅅ오, ㅅ오, ㅅ오’ 등의 여러 變異形態들이 있지만 이것이 대략 16세기 후반기까지는 「客體尊待」 形態素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아득한 옛적부터 「客體尊待」 形態素로 쓰여오던 /-ㅅㅂ- /은 16세기말 17세기초에 이르러 「相對尊待」 形態素로 변천되었던 것이다.

5) 李崇寧, “敬語法研究”, 震檀學報 25·26·27合併號, 震檀學會.

{-마씀} 또한 全國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특이한 形態素가 아닌가 한다. ‘말씀’이란 단어가 添辭化하면서 그 語形도 변이를 일으켜 /-마씀~-마씀~-마슴~-마슴/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方言에서 相對尊待를 表現하는 세 형태 중 가장 늦게 轉用된 것으로 보인다.

客體尊待는 方言에 謙讓語가 잘 발달되 있지 않은 고로 相對尊待法 만큼 독특한 特徵은 없으나 ‘안네다, 슬우다’ 등의 形態가 있어서 客體尊待 表示를 하고 있다.

謙讓語가 方言에 잘 발달되 있지 않은 것처럼 名詞에서도 尊待語로서의 語彙는 무척 부족하다. 표준어에서는 ‘밥’에 ‘진지’란 높임말이 있고 나이를 연령, 연세, 춘추’라고 지극히 평범히 쓰이고 있으며, ‘집’을 ‘댁’, ‘이름’을 ‘존함’, ‘생일’을 ‘생신’이라 하는 등 名詞에 따로 마련된 尊待語가 많으나 方言에서는 몇몇 語彙에만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近者에 標準語의 영향을 받아 많은 語彙에 尊待語가 平語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 a. 아버지 밥 먹으서.
- b. 아버지 진지 드십서.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계속되어져서 方言言衆들 사이에 標準語에서의 많은 尊待語彙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 Ⅲ. 結 論

現代言語學의 과제 중의 하나는 전세계 언어에 內在하는 言語의 보편적인 특질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언어의 보편적인 특질은 個別言語에 대한 共通의 성질을 發見하고 그것을 종합함으로써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濟州島 方言에 관한 研究는 玄平孝教授를 비롯하여 여러 학자들에 의해 주로 形態·音韻分野에 構造主義 입장에서 다루어져 왔다. 方言 研究가 단지 그 자체의 연구에 그치지 않고 國語學과 現代言語學의 理論確立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構造言語學 쪽만 아니라 變形生成 쪽 혹은 言語外的 要素에서의 接近 등 보다 많은 方法에 입각하여 方言의 言語現象을 지배하는 규칙의 發見에 힘써야 할

것이다. 方言 尊待法에 관해서는 形態分野에 있어 活用語尾 등에 대한 孤立的·個體的 考察에서 오늘날은 그러한 사항들을 構造的으로 파악하고 體系的으로 定立해내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方言의 尊待法에 관하여서도 앞으로 變形生成 쪽 뿐만 아니라 言語外的 要素에서의 接近도 이뤄져서 濟州島라는 특수한 환경이 만들어낸 독특한 언어의 尊待 體系를 확고하게 理論化함으로써 國語學研究에, 現代言語學의 理論 確立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高永根(1974), “現代國語의 尊卑法에 대한 研究”, 「語文研究 제10권2호」, 서울大語學研究所.
- 金鍾煥(1984), “國語敬語法研究”, 集文堂.
- 南基心(1981), “國語尊待法の 기능”, 「人文科學45」, 延世大.
- 徐正株(1976), “現代國語의 待遇法研究”, 「語學研究제8권2호」, 서울大學研究所.
- 成者徹(1970), “國語待遇法研究”, 「忠大論文集제4집」, 忠北大.
- 申昌淳(1962), “現代國語 尊待法の 概說”, 「文理大學報5」, 高麗大文理大.
- 李仁燮(1972), “敬語研究”, 「논문집제2집」, 서울女大.
- 許 雄(1961), “15C國語의 尊待法과 그 변천”, 「한글128」, 한글학회.
- 李翊燮(1973), “嶺南方言의 敬語法研究”, 「학술연구조성비논문집(어문제6)」, 문교부.
- 玄平孝(1973), “濟州島方言의 活用語尾에 대한 연구”, 「논문집6집」, 제주대
- \_\_\_\_\_ (1974b), “濟州島方言의 定動詞語尾研究”, 「東國大大學院」, 學位論文.
- \_\_\_\_\_ (1977a), “濟州島方言의 尊待法”, 「국어국문학74집」, 국어국문학회.
- \_\_\_\_\_ (1979b), “濟州島方言研究에 대한 檢討”, 「方言1·2호」, 韓國精神文化研究院.